

강\*산이 변해도 가끔은  
주\*희도 주변도 살피고  
희\*망詩 소확행 당신과!  
(ju-hee1024@hanmail.net)

인생이 꽃이라면      강주희

화려한 것 보다 오래된 풍경이 곁에 다가온다  
도시의 사라지고 잊혀지는 골목길, 낡은 집과 건물  
도시도 해처럼 피고 진다  
서해바다 인천 개항장의 꽃 중구, 중구청 옆  
관동 1가 7번지 어린 시절 희노애락 물결 파도처럼 밀려 온다  
동네의 추억 모서리 빛질해 머문다

도시도 매일 진화하며 기다린다  
서로 꽃이 되는 날 위해, 당신의  
관심과 푸르른 손길을!

안부

강주희

지지지직 디지지직  
당신의 청춘 안테나 날씨 어떤지  
독일 사는 \*사무엘 울만이 궁금하데요

길거리 널려 있는 시어들  
갈고 갈아 어떤 보석으로  
탄생시킬지 나태주 시인이 보고 싶데요

구불구불 지령이처럼  
가끔, 갑자 같은 투박한 길도  
함께 걷자네요, 이준관 시인이

감정의 묵은 때  
꽃잎 한 장처럼  
가벼워질 수 있게  
영혼도 햇볕에 바싹 말렸기를  
이해인 수녀, 기도해 주신데요

때론 소리로 요란했던 날,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하는 법  
알고 있나 김시천 시인이 물어보네요

시 쓸 때 미로 간하고  
뻔한 문장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도  
얼마나 더 오래, 언제나 묻는 걸 좋아하는 당신,  
어떤 선택 하든 충분한 심장의 \*쉽보르스카  
풀란드 역에서 무조건 기다린데요

담백한 <국수> 좋아해요요?  
흰 당나귀 타면, 백석 시인 발자국 따라  
시 한 자락 휘리리 펼칠 수 있을까?  
초승달 바람에 기대어 우는 밤입니다

\*사무엘 울만(1840~1924) : <청춘> 시를 쓴 독일 시인

\*<국수> 백석(1912~1996)

\*비스와바 쉽보르스카(1923~2012) : 폴란드 여류시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민주화 등을 증언했다. 고도의 철학적 문제를 다루려는 욕망과 강렬한 휴머니즘으로 이것을 부드럽게 조율했으며, 1996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개인적 문제에 보편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다른 시인들과 구별된다.

선물

강주희

손끝에서 피어나는 소리향기  
은빛 파도 타고  
넘실넘실 흘러간다

200Kg 검은 마법 상자  
육중한 날개 펼치면  
88개 쵸코 막대 사탕  
그 자리에 있다

방울방울 톡톡 스타카토  
오르락내리락  
야뺨뺨 파람팜.  
두 손가락 소란 대는 젓가락 행진곡  
<소녀의 기도> 곡 연습하며  
응답으로 꽃필 날 기다렸지

<은파> 악보, 바다 되어 출렁거리고  
끝없는 까만 음표 폭죽처럼 쏟아진다

모차르트 작은 별 연주하던 아이  
소녀의 설렘으로 쇼팽 검은건반 에튀드를  
숙녀의 열정으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를  
이제 당신과 \*드뷔시 <달빛> 속으로 걸어간다

그 옆, 바르톡 \*미크로코스모스가 기다리고 있다

\* 드뷔시(1862~1918) : 프랑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인상주의 음악 기틀  
마련하여 근대와 현대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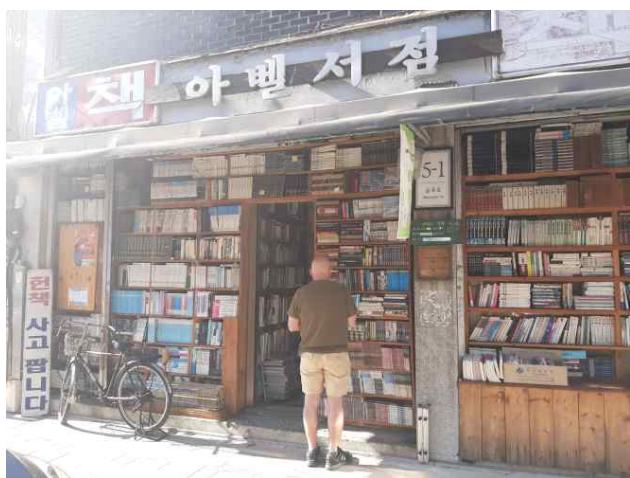
\* 미크로코스모스 : '소우주'라는 뜻으로 피아노작품집 이름  
벨라 바르톡(1881~1945) 헝가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20세기 상반기 동안 가장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작곡가중 한 명

배다리 헌책방 강주희

여기까지 바닷물이 닿았다가  
나무늘보처럼 길게 늘어진 가게들  
문전성시 이뤘던 그 자리  
배다리 삼거리로 학생들 고기떼처럼  
밀려와 엎치락뒤치락 들어선다

문학책보다 참고서 사려고 들렸던 곳  
피아노 책 싸게 사려고 들렸던 곳  
운동주 초판 시집도 무심히 흘려보내던 곳  
늘 착한 가격 웃음 짓게 하던  
그곳

미로 같은 다락방 서점에서  
사그락사그락 책장 넘긴다  
미색 종이 가녀린 떨림  
책마다 켜켜이 나이테 세워진 세월  
몇몇 서점들 명맥 이어가며  
언젠가는 밀물, 썰물 속에  
활어 가득 실은 만선으로  
푸른 꿈 닿으리.



천연 비타민 강주희

월동준비 꽃은 무얼까?  
시집 가서 농사 지으며 가을걷이 끝날 때 그녀 마당 연례 행사

아무것도 몰랐을 땐 속만 채우면 김치 되는 줄 알았지  
절이고 씻고 하루 전부터 치르는 전초전도 몰랐지

누가누가 김치속 맛깔나게 채우나  
누가누가 福담아 기깔나게 담그나

늘어진 거드랑이 소매 축축해질 무렵,  
서서히 치자 빛 노을 스르르 번져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 보쌈 나누며 시름도 날려보낸다

몽글몽글 발효되는 향기도 익어간다  
갓 지은 밥 김치 한 젓이면  
꽃샘 추위 버티는 천연보약

동네 사람들 김장까지 도와주랴  
눈코뜰새 없는 둘째 이모  
점점 기울어지는 허리와 세월  
언제나 맑음이기를!





### 눈사람1

강 주 희

두 눈으로 두근두근 내리는 눈을 보네  
두 귀로 싸락싸락 눈 내리는 소리 듣네  
두 발로 사각사각 하얀 눈 밟네  
두 손으로 둥글게 둥글게 새하얗게 뭉치네  
눈사람이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부르네

### 눈사람2

촛불처럼 언제 피어날지 알 수 없어  
초가 불꽃 되듯이  
눈이 사람 되듯이

고요히 온 몸을 태워 빛을 밝히듯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며 영을 비추네

나뭇잎 떨어져 흙과 하나 되고  
눈송이 떨어져 친구되네  
눈이 내리는 겨울은 신비의 세계  
눈송이 바람 되어 왈츠를

오늘 누구 손에서 생명을 피울까  
코끝이 시리고 눈이 내리고  
뼛속까지 춥고 추어야 따듯해질까!

\* 겨울을 눈, 눈사람, 설경 좋아합니다  
사진은 코로나 때 눈 내렸을 때 차 위에다 작은 꼬마 눈사람을 만들어 찍어 본 사진입니다  
당시 감정 떠올리며 많이 부족하지만 간단히 우선 풀어 보았어요!

## 소확행

- <호모사피엔스>를 읽고      강주희

2100년 지구 사라질까?

코로나바이러스 3년째  
한 치 앞, 알 수 없는 인생  
백신 주사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예고 없는 바이러스와 기후 위기  
세상 안팎 매일 겪는 끊임없는 전쟁  
2년째 우크라이나 사태, 올해 종전될까  
치솟는 고물가, 늘어가는 검은빛 그림자  
무탈함이 백지수표 보다 빛난다.

여전히 파랑새 되어 기웃거렸지.

안경 너머 큰 눈, 다소 마른 몸  
명상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 \*하라리  
그가 속삭인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기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왔다 갔다 파도처럼 마음대로 살라고  
매일 거울 보듯 진정한 날 만나  
여백도 채워 가라고

오늘도 젖고 태워  
말라가는 심장에  
은방울꽃 피워보리.

\* 유발 하라리(1976~ ) : 이스라엘 역사학자, <호모사피엔스> 저자